

‘지역경제핵’ 삼성광주사업장 변화는

1989년 설립·2004년 수원공장 설비 광주공장으로 이전
 현지 별도법인으로 운영하다 2010년 삼성전자에 합병
 생활가전 위주에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 거점으로 재편
 광주지역 협력사만 200여개사 이상...지역경제 기여 커

한국 경제의 큰 별인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생전에 광주에 설립한 대규모 생활가전 생산단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향후 예상되는 운영 방식 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경제계에서도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친의 사망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광주 사업장의 운영 구조가 획기적으로 재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고 이근희 회장이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9년 12월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 하남산업단지에서 현지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삼성광주전자'가 모태다.

삼성전자가 자본금 2043억원을 투입해 설립하고 지분의 94.25%를 보유했다.

이후 생산라인이 갖춰지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본격 생산했다.

2004년에는 수원공장 설비를 광주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됐다.

현지 사업장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취업을 앞둔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도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 중 한 곳으로 3400여명이 일하고 있고 1~3차 협력업체만 200여개사 이상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사업장이다.

하지만 중간에 부침도 있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삼성광주전자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 부문이 중복되면서 시너지가 떨어지고 한 때 적자까지 발생하자 2010년 1월에 그룹사인 삼성전자에 합병됐다.

합병 직후 이듬해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세타기 일부 생산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

했다.

이후 2014년 청소기, 2016년 김치냉장고 생산라인까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생산기반이 열악한 광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듯 했지만 생산라인 고급화 전략방침에 따라 현재는 '프리미엄 가전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장 경영강화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광주사업장을 방문한 이후에는 '광주공장 생산 규모가 보다 더 확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광주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방문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활가전 생산라인 점검과 함께 생활가전 사업부 경영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와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해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왔었다.

광주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응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을 위해 광주사업장의 생산량을 끌어 올리고, 프리미엄 제품군 생산 종류를 다변화 할 경우 광주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시티'로 불리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냉장고와 에어컨 각 50만대, 공기청정기 40만대, 세탁기 8만대 등이 다.

기동취재본부

2금융권도 '오픈뱅킹' 임박...판도 달라질까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시장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제2금융권은 비교적 높은 금리로 고객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자칫 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날까 긴장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여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중앙회는 현재 오픈뱅킹 개발단계로 오는 12월22일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3월29일 도입해서 한 달간 시범기간을 보낸 뒤 4월 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 활성화는 물론 경쟁력 강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오픈뱅킹, 신규 거래 창출, 대면채널까지 확장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중앙(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협조합), 우정사업본부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전산개발 등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은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사 5185만명, 8432만회 가입됐다.

2금융권까지 오픈뱅킹에 뛰어들면 제1금융권 시대에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을 도입한 은행들이 각종 이벤트를 내놓는 것처럼 2금융권도 초반에 앞다투어 금리 인상, 특별판매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놓여온 특별세 1.4%만 내면 되는 장점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픈뱅킹 도입이 양날의 검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소형사에게는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독자 플랫폼을 구축한 대형사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미 은행 앱에 익숙해진 상태인데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은행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누구나 참여하는 플랫폼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단순히 은행보다 2배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승부를 보면 상품



만 가입하러 오는 것이지 실제 계좌이용은 은행 앱에서 하는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관계자 역시 "하나의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경쟁의 장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한 개의 플랫폼에서 선점하면 유리하다는 생각보다는 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방어해야 한다고 본다. 오픈뱅킹 안에서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차별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래 옵션이 추가되지만, 업권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먼저 2금융권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1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좌정보를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2금융권 대신 이용기관이 전부 부담한다.

김민정기자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8.5% ↑ ...“추석 선물세트 잘 팔렸네”

오프라인 매출 1% ↑ ...대형마트·SSM·편의점 강세
 온라인 매출 20% ↑ ...식품·가전·가구 구매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의 온·오프라인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가전·문화(22.3%), 식품(18.5%), 생활·가정(8.6%) 등 실내 활동과 선물세트 위주로 소비재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패션·잡화(-14.9%), 서비스·기타(-4.1%) 등 외부 활동 관련 상품 매출의 감소세는 지속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0% 늘었다. 구매 건수는 11.6% 하락했고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14.3% 올랐다.

산업부는 전년 대비 낮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선물세트 수요가 8월에서 9월로 이동해 전반적인 매출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이 5.3% 늘었다. 준대규모점포(SSM)와 편의점 매출도 각각 4.6%, 2.3% 증가했다. 반면 백화점 매출은 6.2% 줄었다.

백화점은 여성캐주얼(-37.4%), 여성정장(-30.6%), 잡화(-28.9%) 등 패션 부문 매출이 부진했다.

대형마트는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14.9%)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SSM도 낮은 추석의 영향으로 농수축산(9.9%), 신선·조리식품(5.5%), 가공식품(3.9%) 등 식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편의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주류 및 안주 판매가 늘어 음주 등 가공(2.4%) 매출이 증가했다. 담배 등 기타(4.9%) 부문도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0.0% 확대됐다.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도 늘어나는 추세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60.2%), 가전·전자(26.0%), 생활·가구(14.7%) 등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출·여행·공연 관련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서비스·기타(-12.3%), 패션·의류(-1.6%)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정승호기자

이근희 타계

이근희, 승부사기질로 글로벌 삼성 이끌어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42년 1월9일 대구에서 고(故)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출생 후 어린 시절 부친의 고향인 의령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부친인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대구에서 '삼성상회' 운영에 전념하느라 자녀를 돌볼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호암이 이근희 회장을 만나는 일은 일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할머니를 어머니로 오인할 정도였다.

이후 이근희 회장은 여섯 살 무렵 서울 혜화동에서 온가족이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3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온가족은 다시 흩어졌다.

전쟁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그는 부산 사범부속초등학교를 다녔다.

5학년이던 1953년에는 부친의 권유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965년 3월 일본 와세다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고, 1966년 9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이 회장은 학생 시절에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반박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식과 논리를 쏟아내 동기생들을 당황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한 뒤 쏟아내는 스타일이다. 이 회장은 일본어에 능통했고, 다방면에 해박했다는 평가다.

그는 학생 시절 때때로 동기생과는 다른 생각이거나 주장을 내놓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예컨대, 외자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이익창출의 중요성, 인재의 중요성 등 세상을 보는 안목이 남달랐다.

이 회장이 삼성 경영 일선에 뛰어든 것은 1966년 9월이다.

이 회장은 그해 10월 동양방송에 입사한 뒤, 1968년 주식회사 중앙일보·동양방송 이사, 1978년 삼성물산주식회사 부회장, 1980년 중앙일보 이사를 거쳐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이 됐다.

그는 평소 사장단회의에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나,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밑천이 드러날 때까지 물어내었다.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지거나, 한 사람을 상대로 마라톤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의 어법은 간단했다. 그는 "왜?, 그래서, 그런데..." 라는 식으로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퍼서 본질을 찾는 식이었다.

이런 질문 공세 속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동시에 창조적 생각까지 이끌어내는 게 그만의 대화 스타일이다.

이 회장은 남을 속이거나 비난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했으며 그 자신도 정직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다. 이 회장은 과거 세타기 뚜껑 불량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량품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경영진의 무사안일과 거짓보고에 대해 질책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 회장의 성격 중 두드러진 부분은 조용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강력한 리더십이다.

삼성전자 회장 이근희 일생 일지

-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남
- 1961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65년 일본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 졸업
- 1966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그 후 동양방송에 이사로 입사
-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
-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 (~1987년)
- 1981년 한일 경제협회 부회장
- 1982년 대한아미추아리베를린협회 회장 (~1997년)
- 1987년 삼성그룹 회장 (~1988년)
- 199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2017년)
- 1998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2008년)
- 2005년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
-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그룹 경영색안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퇴진
- 2010년 3월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복귀
- 2010년 5월 5일 S니 회장 겸 삼성전자 첫 스마트폰 갤럭시 S 공개 회장 겸 S2 기종 출시
- 2011년 4월 갤럭시 S2 공개, 7월 남아공 더반 IOC 총회, 평창 올림픽 유치 성공
- 2013년 3월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S4 공개
- 2014년 5월11일 호흥관장증서로 쓰러져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
- 2020년 10월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

속에서 배어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승부사 기질로 거함 삼성을 흔들림 없이 항진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으나, 이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삼성이 나서야지. 제 사재를 보태겠다"고 적극 나서 1986년 메가 D램을 생산해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가죽 빼고 모두 바꾸자'는 신경영 선언을 한 이후 휴대전화 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1985년 마침내 애니콜은 전세계 휴대폰 시장 1위인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로 국내 정상에 올라섰다.

당시 대한민국은 모토로라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다.

또 일찌감치 학력보다 실력 위주로 채용했던 점도 눈에 띈다.

1995년 이 회장은 "대학 졸업장과 관계 없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입사 후 승진, 승격에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의 입사 기준은 학력이 아니고 실력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입사시험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과감히 없애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987년 취임 초부터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장은 여성들이 육아 부담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해 어린이집 사업을 현실화했다.

이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스포츠를 국제교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축매체로 인식하고, 1997년부터 올림픽 TOP 스폰서로 활동하는 등 세계의 스포츠 발전에도 매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꾸준한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쳐,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이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도약시킨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오후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한 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이후 계속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서선욱기자